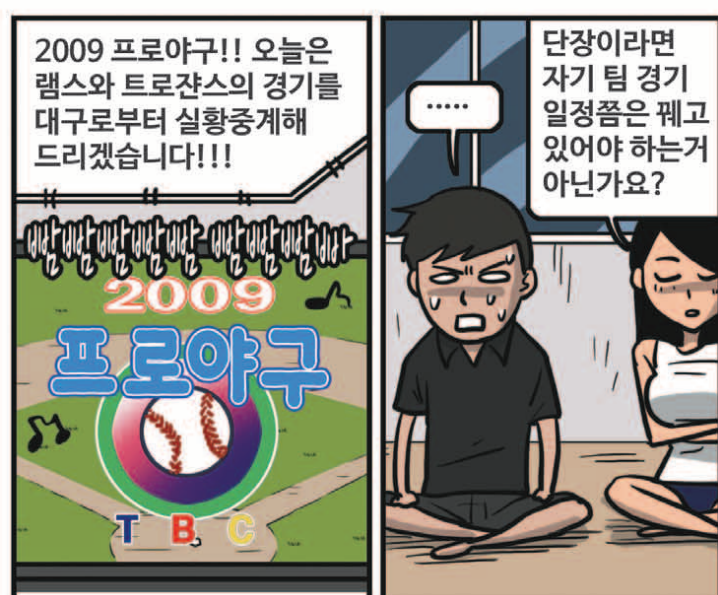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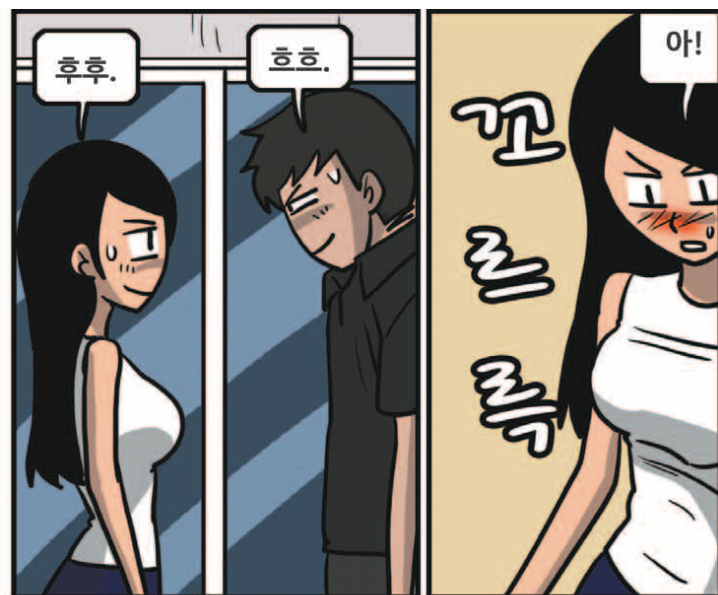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29 >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공연

이해랑 선생 탄생 100주년... 초특급 출연진 한바탕 축제

●연극 '햄릿' | 7월12일~8월7일 |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

연극 햄릿은 1951년 이해랑 선생에 의해 국내 최초로 전막공연이 이루어졌다. 선생이 생전 마지막까지 예술혼을 불태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셰익스피어 타계 400주년, 이해랑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연극 햄릿(사진)이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공연된다. 한국 공연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특급 출연진이 눈길을 끈다. 권성덕, 전무송, 박정자, 손숙, 정동환, 김성화, 유인촌, 윤석화, 손봉숙, 햄릿에 출연하는 9명의 연기 인생을 합치면 무려 422년에 달한다. 출연진과 스태프들은 이해랑 선생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며 관객들과 한바탕 축제와도 같은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티켓 판매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국립극장, 신시컴퍼니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연기파 배우들이 선사하는 블랙 코미디의 진수

●연극 '트루웨스트 리턴즈' | 6월24일~8월28일 | 서울 대학로 예그린씨어터

국내 연극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트루웨스트(사진)가 대학로로 돌아온다. 트루웨스트는 폴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인 샘 셰퍼드가 1980년 발표한 수작으로 미국 브로드웨이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꾸준히 공연되고 있다.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진 두 형제의 모습을 통해 현대 물질만능주의 사회가 조래한 삶의 의미의 상실, 가족의 붕괴 등 인간의 본질적인 주제를 깊이 조명한 작품이다. 이번 시즌에는 연기파 배우들이 함께 해 더욱 뜨겁고 진한 블랙코미디의 재미를 살린다. 형 '리' 역에는 배성우, 오만석, 김중구, 서현우가 캐스팅됐다. 정문성, 이동하, 이현욱, 김선호가 동생 '오스틴' 역을 맡는다. 6월24일부터 7월10일까지 공연에 한해 조기예매할인이 적용되어 전석 4만원에 관람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 한국적 낭만희극으로 재탄생

●연극 '한여름밤의 꿈' | 6월2일~6월12일 |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극단 여행자는 셰익스피어와 떼어놓기 어려운 극단이다. '한여름 밤의 꿈' 비롯해 '환(원작 맥베스)',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십이야' 등을 무대에 올려 언론과 평단, 관객의 사랑과 호평을 받아 왔다. 400여 년 전 영국의 고전을 여행자만의 독특한 해석과 무대로 선보인 덕이다. '한여름 밤의 꿈'은 그 중에서도 극단 여행자의 대표 레퍼토리로 꼽힌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국가와 도시, 페스티벌로부터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한국 연극으로는 최초로 영국 런던의 바비칸 센터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한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우리 전통의 미학과 연희의 양식으로 풀었다. 원작의 요정들은 한국의 도깨비로 치환된다. 무대미술 역시 대청마루, 한지, 삼베옷 등 한국 고유의 미학이 가득 담겨있다.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를 한국 전래의 육담과 해학으로 버무려 한국적 정서의 낭만 희극으로 재탄생시켰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터민들의 삶과 애환

●연극 '달콤한 거짓말' | 5월29일까지 | 서울 대학로 여우벌씨어터

2014년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의 후원을 받아 NGO단체인 남북동행, 이음씨어터가 공동 제작해 초연한 작품이다. 당시 제목은 '오작교'였다. 이후 각색을 거치며 남북의 분단현실과 남녀의 로맨스를 부각시키기 위해 '달콤한 거짓말'(사진)로 제목이 바뀌었다. '분터민' 총각과 '새터민' 처녀의 연애담을 중심축으로 새터민들의 한국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새터민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다루면서도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볼 것을 권한다. 가법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이슈를 심각하지도 무겁지도 않게 전달한다. 새터민을 위한 인터넷방송국 PD인 철수는 명문가의 종손으로 부모님의 성황에 마지못해 강요맞선을 나가게 된다. 탈북 7년차의 영화는 배우의 꿈을 향해 돌진하는 당찬 새터민이다.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반년이 남자에게 채이던 영화는 극단 선택의 부탁을 받고 대타맞선을 나간다. 철수와 영화는 우여곡절 끝에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다.



뉴스디자인 | 김철조 기자 minigram@donga.com

Biz gallery

한국타이어, 소외계층 아동 지원 캠페인

한국타이어가 2011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해 온 아동지원 캠페인 '2016 신나는 등굣길'(사진)을 6월 3일까지 실시한다. '신나는 등굣길'은 한국타이어의 핵심 비즈니스 특성인 '이동성(Mobility)'을 반영한 대표적인 캠페인이다. 한국타이어 임직원과 네티즌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문화 캠페인으로 지난해까지 334명의 아이들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128명의 아이들에게 통학 교통비를 후원했다. 6월 3일까지 온라인 기부 사이트 '드림풀(www.dreamfull.or.kr)'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드림풀 사이트 회원가입만 해도 한국타이어가 2000원을 추가로 기부한다.



KT 쇼핑서비스 '쇼닥' 100만 다운로드

KT는 모바일 큐레이션 쇼핑서비스 '쇼닥'이 누적 다운로드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쇼닥은 '쇼핑'과 '닥터'의 합성어로 쇼핑몰과 구매자의 상품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해 원하는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찾아 해답 필요 없이 도와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쇼닥은 현재 구글플레이 인기차트에서 쇼핑 카테고리 1위를 기록 중이다. 재방문율은 31.4%, 월 5회 이상 방문율은 17.7%이다.

CJ제일제당, '톡톡 주부 평가단' 모집

CJ제일제당이 6월 13일까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톡톡(Talk Talk) 주부 평가단'을 모집한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5~49세 주부 중에서 월 1~2회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6~12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하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CJ제일제당 패밀리 클럽 홈페이지(www.cjfamily.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톡톡 주부 평가단'은 정기 모임을 통해 기존 제품이나 신제품을 맛본 뒤 솔직하게 평가하고, 가정에서 직접 요리 해보고 가족과 함께 제품을 평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갓 출시된 CJ제일제당의 신제품을 먼저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혜택도 주어진다.

옥션, 고객 참여 '안전 캠핑'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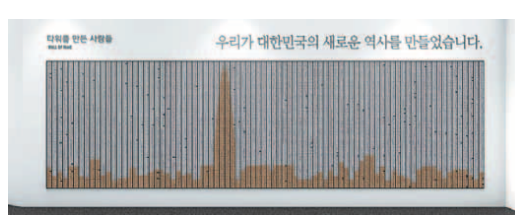
옥션은 21일과 22일 경기도 연천 오토캠핑장에 고객 100팀을 초청해 '제8회 철없는 캠핑-위기 탈출! 우리 가족 안전 캠핑'(사진)을 개최했다. 행사는 옥션이 고객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자 매년 정기적



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킨십' 마케팅의 일환으로 열렸다. '안전 캠핑'을 주제로 연천소방서와 함께 교육을 실시했다. 또 8개 코스별 스탬프 활동과 자원을 위한 유기농 농작물 수확체험, 부모님을 위한 '추억의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LG유플러스, 하니웰과 IoT 업무협약

LG유플러스는 한국 하니웰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실내 온도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아파트, 빌딩 등 주거공간이나 사무공간에 빌트인으로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에 IoT 플랫폼을 연동해 원격으로 실내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신축되는 중소 아파트나 오피스텔, 사무용 빌딩 등 공간에 IoT 온도조절기를 공급한다. 또 하니웰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센서 기술 및 제품들과의 확장 결합을 통한 통합 에너지 관리 서비스도 구축하게 된다.



롯데월드타워, 8000여 근로자 이름 새겨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는 100일 이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7500여 명과 올해 12월까지 추가되는 근로자, 롯데물산 및 롯데건설 임직원 등 총 8000여 명의 이름을 롯데월드타워 5층 타워 홍보관 벽면에 새긴다. '타워를 만든 사람들(Wall of Fame)'(사진)이라는 제목 아래 8000여 명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적고, 가장 높은 곳에서 일한 근로자, 현장 최초 여성, 최장시간 근무, 국내 첫 민간 대테러 담당자 등 현장의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진과 그들의 인터뷰를 실은 '차량스러운 얼굴들'이란 공간도 마련한다.